스몰캡

산업이슈 브리프 |

Check Point

- 2021 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+2% yoy
- 같은 기간 ODM 4 사 합산 매출액은 +6%
- 2022 년, 가동률과 해외수요 추이에 주목

건강기능식품 업황 점검

Analyst 조은애 _ 02.3779.8951 _ goodkid@ebestsec.co.kr

2021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+2% yoy, P·Q 관점에서 모두 성장 중이나 성장세는 둔화

- 건강기능식품협회 추정 2021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5.0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+2.4% 성장
- 1인당 평균구매액은 313,000원으로 최근 3년 평균 +1.3% 성장, 구매경험률 81%(+1%p yoy)로 상승폭 둔화
- 원료별 시장성장률(% yoy)은 홍삼 −1%, 프로바이오틱스 +2%, EPA/DHA +8%, 콜라겐 +28%, 단백질 −8%, 당귀추출물 −42%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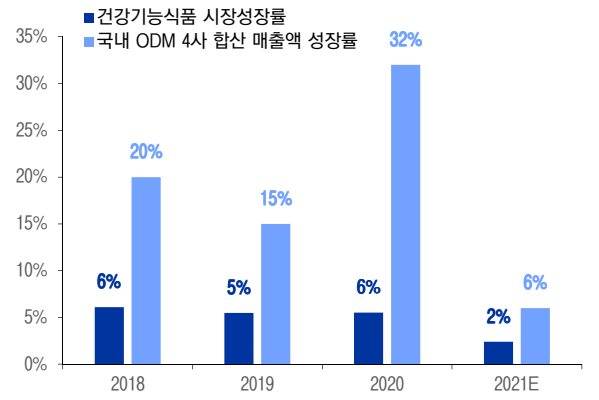
2021년 건강기능식품 OEM/ODM 4사 합산 매출액 +6% yoy 추정

- 업체별 2021년 추정 매출액 성장률(% yoy)은 노바렉스 +23%, 서흥 +7%, 콜마비앤에이치 −4%, 코스맥스엔비티 +9%
- 2021년에도 건강기능식품 대형 OEM/ODM 업체로의 Vendor Consolidation 현상 지속이 확인
- 4분기 노바렉스는 증설효과로 월 최대매출 갱신하면서 분기 최대 매출액(750억원, +36% yoy, +11% qoq) 달성, 콜마비앤에이치는 기존 고객사의 생산내재화 및 내수 부진으로 % yoy 기준 매출액 역성장(−14%)이 지속되나 분기기준 +5% qoq 소폭 성장한 것으로 추정

2022년 건강기능식품 OEM/ODM 업체 Q 성장은 가동률로 확인, 해외수요 추이에도 지속적인 관심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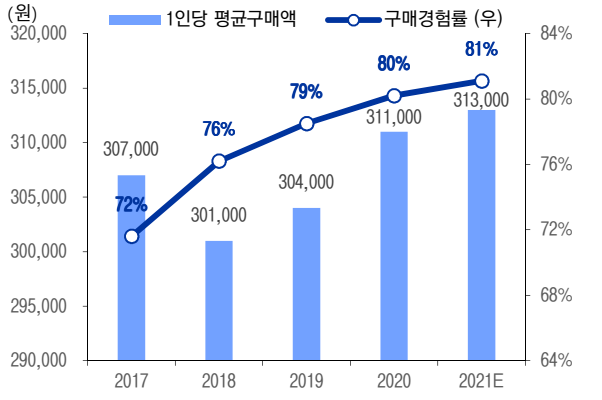
- 노바렉스(오송 신공장), 콜마비앤에이치(세종 헤모힘, 중국 연태 신공장) 등 늘어난 캐파에 따른 Q 성장이 가동률로 확인 가능할 전망
- 주가 리레이팅 요소는 해외수요(노바렉스 직수출 물량, 콜마비앤에이치 중국, 코스맥스엔비티 미국)가 트리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

그림1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ODM 업체 성장률 비교



자료: 건강기능식품협회, Fnguide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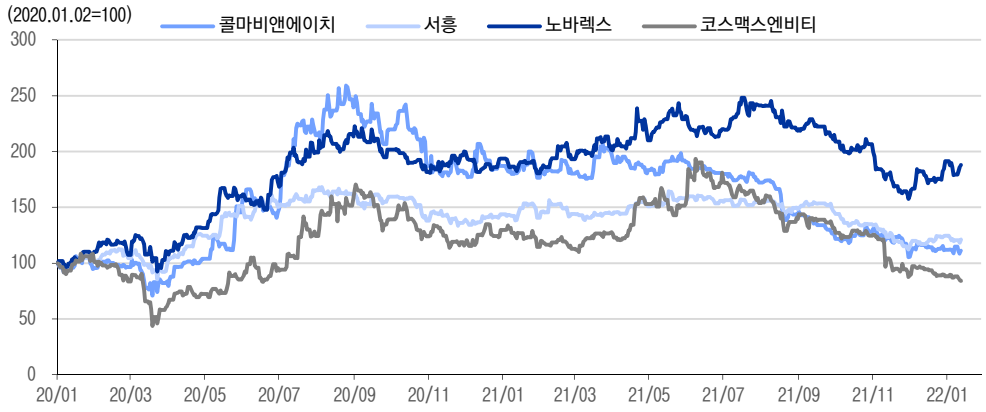
그림2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구매 행태



자료: 건강기능식품협회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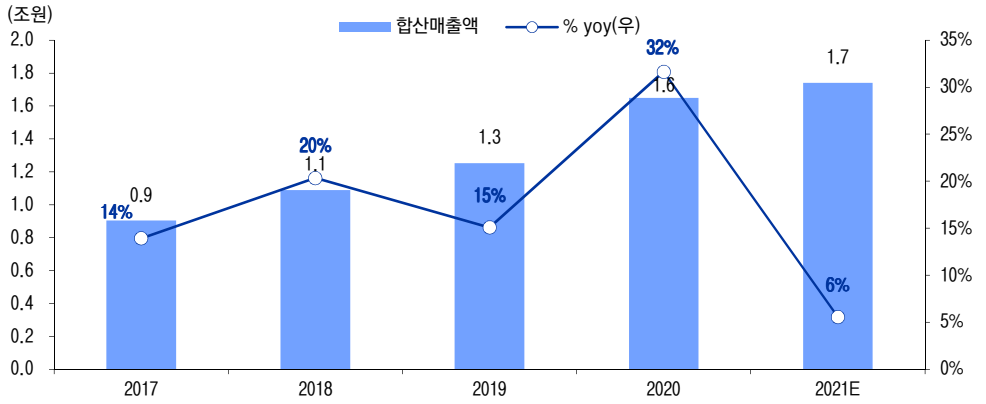
이베스트투자증권

그림1 건강기능식품 ODM 4사 시가총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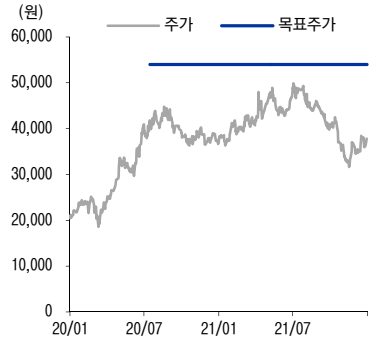
자료: Fnguide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건강기능식품 ODM 4사 합산매출액 추이



자료: Fnguide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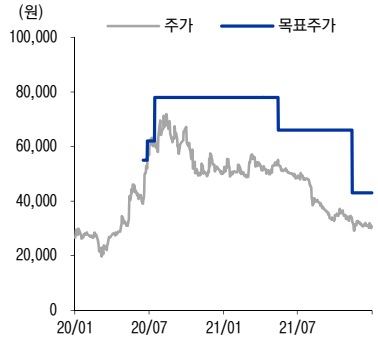
노바렉스 목표주가 추이



투자의견 변동내역

일시	투자 의견	목표 가격	괴리율(%) 최고 대비	괴리율(%) 최저 대비	괴리율(%) 평균 대비	일시	투자 의견	목표 가격	괴리율(%) 최고 대비	괴리율(%) 최저 대비	괴리율(%) 평균 대비
2020.07.28	신규	조은애									
2020.07.28	Buy	54,000									

콜마비앤에이치 목표주가 추이



투자의견 변동내역

일시	투자 의견	목표 가격	괴리율(%) 최고 대비	괴리율(%) 최저 대비	괴리율(%) 평균 대비	일시	투자 의견	목표 가격	괴리율(%) 최고 대비	괴리율(%) 최저 대비	괴리율(%) 평균 대비
2020.06.30	변경	조은애									
2020.06.30	Buy	55,000	-3.8		-12.9						
2020.07.10	Buy	62,000	1.9		-2.6						
2020.07.28	Buy	78,000	-7.8		-28.8						
2021.05.28	Buy	66,000	-19.2		-35.7						
2021.11.26	Buy	43,000									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조은애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 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 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	+15% 이상 기대 -15% ~ +15% 기대 -15% 이하 기대	93.1% 6.9%	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±20%에서 ±15%로 변경
		합계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21. 1. 1 ~ 2021. 12.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 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